

호투·호타에 시범경기 무패 … 반전의 KIA

NC와 시범경기 6-5 승

선발 터너, 6이닝 3실점 'QS'

해즐베이커, 3안타 맹활약

19·20일 키움과 마지막 2연전

김기훈·임기영 선발 시험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타자 해즐베이커가 2019시즌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해즐베이커가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루타 포함 3안타 경기를 하며 팔팔 날았다.

고민 많던 해즐베이커의 상승세 속에 KIA는 장단 13안타로 6점을 만들며 6-5 승리를 거뒀다.

해즐베이커는 시범경기 개막 후 치른 두 경기에서 안타 없이 6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우려를 샀다. 하지만 매일 투타를 이어가면서 한국 야구 적응에 나선 그는 반전의 주망을 보였다.

지난 14일 KT와의 경기에서 대타로 나와 시범경기 첫 안타를 조구 홈런으로 장식한 그는 우천취소로 하루 쉬 뒤, 16일 첫 타점도 만들었다.

해즐베이커는 이날 1-2로 뒤진 4회 1사 2루서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로 타점을 올렸다.

그리고 안방에서 치른 시범경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3안타를 쏟아냈다.

첫 안타는 운이 따른 기분 좋은 안타였다. 해즐베이커의 타구를 잡기 위해 NC 2루수 박민우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다. 그 사이 공은 2루수를 넘어 떨어졌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우천안타로 멀티 히트에 성공한 해즐베이커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한 숨 고른 뒤, 7회 다시 안타를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우익수 키를 넘기는 타구로 3루까지 향하면서 빠른 발도 과시했다.

터너의 두 번째 등판이자 개막전 마지막 리허설도 순조롭게 끝났다.

터너는 1회 시작과 함께 선두타자 박민우에게 3루타를 허용했고, 권희동과 박석민의 연속 안타로 2실점을 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했다.

하지만 터너는 85개의 공으로 6회를 책임졌다. 터너는 6이닝 6피안타 2볼넷 3탈삼진 3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작구 최고 구속도 152km를 기록하는 등 터너의 한국에서의 첫 시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KIA는 이날 승리와 함께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홈 6연전을 무패로 마무리했다.

15일 KT 위즈와의 경기가 비와 우박으로 취소되면서 5경기를 치른 KIA의 성적은 3승 2무(승률 1.000), 4승 2패를 기록한 한화 이글스(승률 0.667)에 앞서 시범경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KIA는 18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고척으로 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시범경기 마지막 2연전을 치른다.

비로 15일 선발 등판 경기에서 1이닝 밖에 소화하지 못했던 김기훈이 19일 다시 선발로 등판하고, 20일 임기영이 시범경기 마지막 주자로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터너

덕아웃 T 톡톡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 임기영에게 올 시즌은 '명예 회복'의 해다. 2017년 마운드의 셋별이 되어 팀 우승에도 기여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어깨 부상 등의 여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 시즌에도 '선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임기영은 한승혁의 부상 속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선발로서의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임기영은 지난 14일 KT와의 경기에서 4.1이닝 6피안타 2사자구 5탈삼진 4실점의 피칭을 했다. 완벽한 기록은 아니지만 묵직한 구위와 예리한 변화구로 눈길을 끌었다. 작구 최고 구속은 139km. 임기영은 오는 20일 키움과의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마지막 선발 점점을 할 예정이다. 임기영은 "(공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살아남아야 한다.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달린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기태 감독 “올 시즌 마무리 투수는 김윤동” 박스 들다 빼끗 … 안치홍 “예전 같지 않아요”

▲박민우가 나가서 좋았어요 = '투심'으로 어필하는 고영창은 스프링캠프에서 5경기에 나와 6.2이닝을 소화하면서 1피안타 3사자구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시범경기에서도 기세는 이어지고 있다. 앞선 12, 14일 고영창은 피안타 없이 탈삼진 하나를 기록하면서 무실점 이닝을 8.2이닝으로 늘렸다. 고영창은 지난 16일 NC전에서 처음 실점 위기를 맞았다. 0-2로 뒤진 7회초 등판한 고영창은 선두타자로 나온 발 빠른 박민우를 좌전 안타로 출루시켰다. 우익수 플라이로 원아웃. 하지만 박석민의 내야 안타와 함께 유격수 송구실책까지 나오면서 1사 2-3루가 됐다. 플라이 하나면 주자가 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영창



해즐베이커

은 박현욱에게 3루 땅볼을 유도, 5-4-3의 병살을 만들어냈다. 고영창은 "(발 빠른) 박민우가 나간 상황에서 던져본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며 "처음 컨트리들이 좋지 않았는데 후반에 잡혀서 팬찮았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땅볼 유도하고 볼넷 안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예전 같지 않아요 = 트레이닝 파트를 긴장시킨 안치홍이었다. 17일 타격 훈련 시간에 안치홍이 트레이닝 코치를 찾았다. 볼박스를 옮기려다가 근육이 늘었다는 안치홍은 "예전에는 혼자 들어도 괜찮았는데"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잠시 부상을 호소했지만 안치홍은 이날 좋은 타격감을 보였다. 첫타석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간 안치홍은 3

회 무사 2루에서 중전안타로 타점을 올렸고, 3회 4번째 타석에서는 2타점 2루타를 기록했다.

▲마지막에 던졌던 선수가 = 김윤동이 2019시즌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를 맡는다. 김기태 감독은 17일 NC와의 경기에 앞서 가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올 시즌 마무리를 누가 하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기태 감독은 "어제 마지막에 던졌던 선수가 가야 하지 않겠냐"며 답을 했다. 전날 KIA 마지막 투수는 김윤동이었다. KIA는 16일 개막전에 맞춰 라인업을 제출했다. '에이스' 양현종이 선발로 들어섰고, 유격수 김선빈을 토타자로 해 김주찬(1루수)-안치홍(2루수)-최형우(좌익수)-나지완(지명타자)-해즐베이커(중견수)-이명기(우익수)-한승택(포수)-최원준(3루수)이 나란히 타석에 섰다. 그리고 마운드는 양현종에 이어 김세현-이준영-고영창-하준영이 물려받았다. 2-2로 맞선 9회초 마지막 수비에서는 김윤동이 시범경기 첫 등판에 나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용규를 어이할꼬

시범경기 직전 트레이드 요청…한화, 육성군행 통보 뒤 후속 논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트레이드를 요청한 이용규(34)를 육성군으로 내려보낸 한화 이글스가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박종훈 한화 단장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프런트와 현장, 이용규의 상황을 모두 살펴야 한다"며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용규는 스프링캠프 출발을 하루 앞둔 1월 30일 한화와 2+1년 최대 26억원에 프리에이전트(F.A) 잔류 계약을 했다. 세부 내용은 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 연간 인센티브 4억원이다.

스프링캠프 기간에 한용덕 한화 감독은 이용규를 '9번 타자 좌익수'로 사실상 낙점했다. 1번 혹은 2번 타순, 중견수 자리에 익숙했던 이용규에게는 낯선 자리였다.

이용규는 시범경기 시작 전인 11일 한 감독과 면담하며 처음 트레이드 요청을 했다. 그리고 15일에는 구단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한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선수단 분위기를 다잡고자 16일 이용규를 육성군으로 내려보냈다. '육성군행 통보'는 사실상의 전력 배제다. 한화 구단 내에서는 "다른 팀에서 뛰고 싶다고 선언한 선수를 경기에 내보낼 수 있겠나"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화는 베테랑 좌완 권혁을 자유계약선수로 풀여준 전례가 있다. 권혁은 1월 한화에 방출을 요청했고, 한화는 고민 끝에 2월 1일 권혁을 풀어줬다. 두산 베어스와 육성선수 계약을 한 권혁은 5월 1일부터 1군에서 뛸 수 있다.

한화는 "권혁과 이용규 사례는 다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단 당시 권혁은 '1군 전력'이 아니었다. 방출 요청 시기도, 스프링캠프 시작 전이었다. 반면 이용규는 한화와 FA 계약을 했고, 1군 전력으로 분류됐다. 주전 선수가 개막 직전에 트레이드를 요구한 것에, 한화는 크게 당황했다.

베테랑들의 연이은 방출 요청을 들어주는 건, 선수단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연합뉴스

호남 초등야구 최강 '수창초'

KIA타이거즈기 대성초 꺾고 우승

수창초가 제16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 학교 야구대회 우승팀이 됐다.

수창초는 지난 15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광주 대성초를 4-3으로 꺾고, 대회 통산 5번째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광주·전남 지역 11개 초등 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승팀 수창초에게는 우승기와 함께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을 차지한 대성초와 3위 2팀(순천남산초, 광주 학강초)에게도 트로피와 상장, 부상으로 야구용품이 지급됐다.

참가한 모든 팀에게도 각각 야구용품이 참가 기념품으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수창초 류연우는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돼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다양한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KIA타이거즈가 광주, 전남지



지난 15일 무등야구장에서 끝난 '제16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 수창초등학교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개최했다.

◇개인상 수상자

▲최우수 선수상 = 류연우(수창초) ▲타격상 = 김태현(타율 0.750·수창초) ▲우수 투수상 = 이주영(수창초) ▲최다 안타상 = 이영수(6안타·대성

초) ▲홈런상 = 김태현(3개·수창초) ▲최다 도루상 = 김근화(5개·대성초) ▲최다 타점상 = 김태현(7타점·수창초) ▲수훈상 = 남경민(수창초) ▲감독상 = 이태훈(대성초) ▲미기상 = 강동현(대성초)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